



잘 만든 캐릭터 속편으로 이어진다

‘조선명탐정’ ‘전우치’ 등 시리즈 붐물
김명민-오달수, 권상우-성동일 콤비 출연
‘해적: 바다로 간 산적’ 등도 속편 검토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한국영화들의 속편이 잇따라 제작된다.

영화계에 따르면 ‘조선명탐정3’는 최근 시나리오 작업을 마쳤으며 올 하반기에 촬영에 들어가 내년 설 연휴에 개봉한다.

‘조선명탐정’은 여러 사건을 해결하는 명탐정 김민(김명민 분)과 조력자 서필(오달수 분)의 활약을 그린 코믹 사극. 2011년 ‘조선명탐정: 각시투구꽃의 비밀’과 2015년 ‘조선명탐정: 사라진 놉의 딸’은 각각 478만명과 387만명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1편과 2편에 이어 3편에서도 김명민·오달수 콤비와 김석윤 감독이 호흡을 맞춘다. 명탐정 콤비가 30년 만에 깨어난 흡혈귀를 둘러싼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내용을 그린 다.

영화 ‘전우치’의 속편도 나온다. CJ E&M은 속편 제작을 위해 오는 7월 프리트먼트(시나리오 전 단계) 공모에 나선다. ‘전우치’는 조선 시대 약동 도사 전우치(강동원 분)가 500년이 지난 현대에 봉인에서 풀려난 후 세상을 어지럽히는 요괴들에 맞서 싸우는 활약상을 그린 작품. 2009년 개봉 당시 613만명을 불러모았다.

성동일과 권상우가 주연한 ‘탐정: 더 비기닝’(2015)도 속편이 만들어진다. 탐정 놀이를 즐기는 만화방 주인(권상우 분)과 베테랑 형사(성동일 분)의 주리작전을 그린 작

품으로, 2015년 개봉 당시 262만명이 관람했다. 같은 배우가 출연하는 ‘탐정2’는 ‘미씽’(2016)의 이인희 감독이 메가폰을 잡는다.

주요인 작가의 동명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신과 함께’는 한국영화로는 처음으로 1편과 2편을 동시에 촬영했다. 제작비만 약 400억원에 달한다. 방자들이 49일 동안 저승세계에서 7번의 심판을 받는 과정을 그린 영화로, 1편은 오는 12월에, 2편은 내년 여름에 관객과 만난다.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이정재, 마동석 등이 출연하며 ‘국가대표’(2009)의 김용화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26일 개봉하는 이선균·안재홍 주연의 영화 ‘임금님의 사건 수첩’도 결말을 통해 속편 가능성을 열어줬다. 예종(이선균 분)과 신입사관 윤이서(안재홍 분)가 조선 민심을 뒤엎는 괴사건을 추적하는 내용의 코믹액션 수사극이다. 이 영화의 투자배급사 CJ E&M은 5월 초 황금연휴기 흥행 성적을 본 뒤 속편 제작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2014년 개봉해 866만명을 불러모은 김남길·손예진 주연의 ‘해적: 바다로 간 산적’도 속편 제작이 언급되는 영화 중 하나다.

할리우드에서는 슈퍼히어로를 중심으로 한 시리즈 영화가 대세가 된 지 오래지만, 한국에서는 속편 제작이 많지 않았던 게 사실.

그동안 ‘투깝스’ ‘강개수업’ ‘여고괴담’ ‘가문의 영광’

‘조폭마누라’ ‘달마야 놀자’ ‘공공의 적’ ‘두사부일체’ ‘쌈작시공’ ‘동갑내기 과외하기’ ‘엽기적인 그녀’ ‘국가대표’ 정도가 속편으로 제작됐다.

통상 속편이 나오려면 전편이 흥행에 성공해야 한다. ‘신과 함께’는 제작비 절감을 위해 전편의 결과를 보지 않고 속편을 만든 이례적인 경우지만, 스타급 배우들과 탄탄한 원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주인공의 캐릭터와 장르도 시리즈물에 맞아야 한다. 주로 코믹탐정 영화의 속편이 나오는 이유도 똑같은 캐릭터를 앞세워 다른 사건을 풀아가는 방식으로 시리즈를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명탐정’ 시리즈의 제작사인 청년필름의 이선미 이사는 “속편은 전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캐릭터나 스토리를 더 진화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창작자의 입장에서는 판을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흥행에 성공한 캐릭터의 경우 제작자라면 누구나 속편을 만들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한 대형배급사 관계자는 “시리즈물은 캐릭터와 세계관이 서로 연결돼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마블 코믹스처럼 스토리가 방대하고 부모와 자식 세대가 모두 아는 캐릭터가 많지만, 국내에서는 그런 콘텐츠가 별로 없으니 속편 제작이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찬휘, 밴드 스트릿건즈 로이와 결혼 배우 윤진서도 30일 웨딩마치

가수 소찬휘(본명 김경희·45)와 배우 윤진서(34)가 나란히 결혼 소식을 알렸다.

소찬휘는 25일 6살 연하의 밴드 스트릿건즈 멤버 로이(본명 김경율·39)와 결혼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진구 광장동 웨다타워호텔 아트홀에서 가족과 친지를 초대한 가운데 화촉을 밝혔다.

소속사 와이드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주례와 축가 없이 두 사람이 각자 준비한 편지를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했다”며 “두 사람이 ‘잘살겠다. 축하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소감을 전했다”고 말했다.

3년 전부터 알고 지낸 두 사람은 스트릿건즈가 소찬휘의 소속사로 합류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어 2014년 함께 발표한 앨범 ‘네오 로키빌리 시즌’을 작업하고 공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지난해 말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인 이들은 지난 2월 일본 오키나와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

폭발적인 고음이 매력인 소찬휘는 1996년 데뷔해 ‘티어스’, ‘현명한 선택’, ‘헤어지는 기회’ 등의 히트곡을 냈다. 2003년 뮤지컬 배우 출신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2006년 이혼했다.

로이는 2003년 스트릿건즈의 전신인 밴드 라타이거즈로 데뷔했다. 그가 소속된 스트릿건즈는 2015년 KBS 2TV 밴드 경연 프로그램 ‘톱밴드 시즌 3’에 출연해 ‘톱 3’에 들었다.

윤진서(34)가 오는 30일 결혼한다고 알렸다.

윤진서의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25일 “예비 신랑은 같은 취미 활동을 하다 만나게 된 또래로, 3년간의 열애 끝에 끝으로 사랑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바탕으로 인연의 결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예식은 제주도에 있는 윤진서의 자택에서 양가 가족과 친척만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치를 예정이다.

소속사는 “이제 한 가정을 이루며 새 출발을 앞둔 윤진서의 앞날을 축복해달라”고 전했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홍정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속스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선 후보 토론회 (홍준표 후보)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재)	00 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자유한국당 홍준표)	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재)	00 SBS 12 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포럼 55 테마스페셜
1	00 제19대 대선 후보자 경력방송 05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종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우리말 겨우기(재)	00 속보이는TV 인사이드(재)	2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재)	55 닥터 365
2	4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5 꾸러기 식사교실 55 프리파라 2	00 뉴스브리핑
3	05 시사기획 창(재)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지연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재)	00 MBC 뉴스M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경제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고령전문록 남도에 살아리랏다 30 생방송 TV블로그 품지락
7	00 KBS 뉴스7 15 공감다큐, 사람 40 집중 인터뷰 이사람	50 일일드라마 <이름 없는 여자>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닥터 365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5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문재인 후보)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제19대 대선 방송연설 (안철수 후보(친진)) 20 시사토론 10	00 수목드라마 <추리의 여왕>	00 수목드라마 <자체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15 KBS 뉴스라인 40 문화의 행기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2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동행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45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전문록 아틀라스 <순다열도의 대자연 칼리만탄>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월드 08:00 덩동영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열마 개루터(재) 09:30 플랑	09:40 글로벌 애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순다열도의 대자연 칼리만탄> 10:50 최고의 오리비결 (속강페스토 연어구이과 속강페스토 스파게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EBS 특별기획 통찰(洞察)(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끼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영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어벤져스: 울트론 레벌루션 19:30 EBS 뉴스 19:55 메디칼 다큐-7요일(재) 20:50 세계테마기행	<짜잔! 마다카스카르 3부 베조족 바다 위의 사람들> 21:30 한국기행 <꽃피고 간다 3부 봄은 화기에> 21:50 EBS 다큐 프라임 <백성의 물고기 3부 행복한 버린내, 고등어> 22:45 극한직업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미래 의료 혁명은 이미 시작됐다 -정보의학자 김주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26일(음 4월 1일 癸未)

	48년생 여러 사람의 지혜가 모여져 대처가 가능하다. 60년생 거품만 무성할 뿐이고 실속이 약하다는 것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72년생 는 깜빡할 사이에 일어난다. 84년생 가까운 이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8, 33		42년생 앞날은 막힘없이 타이어가 너르다. 54년생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므로 개의치 말라. 66년생 후일을 기약하자. 78년생 상대의 깊은 의중은 따로 있으니라. 90년생 무릎을 탁 치면서 깨닫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92, 81
	49년생 사세한 정황 파악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61년생 정리 정돈하기에 좋은 날이다. 73년생 좌우기간에 걸려들면 복잡하게 되어 있다. 85년생 간발의 차가 장래의 행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체가 되고야 말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0, 49		43년생 극한적인 돌발 사태가 보이나 매사에 신중 하라. 55년생 아직 인심하기에는 이르니 조심성 있게 임해야 할 것이다. 67년생 서저에 발본색원하는 것이 좋다. 79년생 제스처에 미혹되면 곤란하다. 91년생 냉철하게 뒤돌아보라. 행운의 숫자 : 75, 68
	50년생 역풍이지만 곧 순풍으로 바뀌리라. 62년생 주변의 잡다한 충고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참고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74년생 도음이 되지는 않는다. 86년생 만만하고 변통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2, 82		44년생 자신 있게 진행한다면 양호한 결과를 얻으리라. 56년생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으니라. 68년생 거두어들이는 데 있어서 새어나가는 것이 없지 살피보자. 80년생 보편적 가치 기준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5, 98
	51년생 심심하지는 않겠다. 63년생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효율성을 제고하자. 75년생 반드시 이행해야 차질을 빚지 않으리라. 87년생 주어진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 목욕하 진행해 나간다면 향후의 발전을 기약한다. 행운의 숫자 : 40, 45		45년생 기본 계획에 변경이 생기면서 차질을 빚을 수도 있으니라. 57년생 지출이 커질 수도 있음을 감안하라. 69년생 그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니라. 81년생 막힌 것은 망설이지 말고 뚫으라. 행운의 숫자 : 58, 87
	52년생 마음에 내키지 않더라도 현재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이 이이다. 64년생 희망 사항이 현실화될 것이니 기대해 볼만하다. 76년생 등한시한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88년생 개털에 베풀 거듯 하겠다. 행운의 숫자 : 14, 06		46년생 부수적인 일은 보류하고 주된 일을 도모해야 한다. 58년생 재물과 은인이 사방에 보이는 형상이다. 70년생 양면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다. 82년생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7, 37
	53년생 전반적이며 혁신적으로 개편되는 마당이다. 65년생 그 무엇보다도 실속이 있어야 하겠다. 77년생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껴지라도 요령을 찾고 보면 매우 쉬워질 것이다. 89년생 예상 못한 반면에 휩쓸릴 수도 있으니라. 행운의 숫자 : 54, 12		47년생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매번 똑같은 형태로 당하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었다. 59년생 아무리 봐도 별로 슬프고 없을 것이니라. 71년생 잘 유도해야만 우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83년생 맹목적이러면 무의미하다. 행운의 숫자 : 85, 4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